

유씨 한사람에 온국민이 나서야 하나

■ 유병언 도피행각 한달째... 단서조차 못찾은 검·경

5만5000명 투입하고도 '빈손'... 형식적 검문검색 도마위에

무능한 수사 문책론 확산... 부인 권운자씨 분당에서 체포

세월호 실질적 소유주로 파악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검·경 수사망을 능라하며 도피 행각을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검·경이 지난달 21일 유씨 부자의 행적을 찾았으며 금수원에 진입한 지 한 달이 흘렀음에도, 유씨 부자는 검·경의 포위망에 걸려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 수사를 내세웠던 검·경 정보·수사력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역대 최대 현상금(6억)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검거' 지시에 검·경 뿐 아니라 군 부대까지 매일 수천명의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수배자 검거를 위해 임시 반상회까지 개최하는 등 사실상 국민총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머리카락도 찾지 못하겠다'는 푸념만 이어진다.

◇형식적 검문검색...5만5000명 투입에도 '빈 손'=22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달 25일 순천시 송치재 휴게소에서 유 전 회장의 흔적을 확인한 뒤 여태껏 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안성 금수원 →여수 추격전 →순천 송치재 별장 →전주 →해남·목포 밀항설 등 유 전 회장 출몰 소식이 난무했지만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의 '어실픈 단독 플레이'로 순천 송치재 인근 휴게소 검문도 나섰다가 정차 유씨가 머물렀던 식당 외 50m 가량 떨어진 집 수색은 하지 않은 채 돌아가는 허술함과 번번이 유출되는 수사 정보도 도피 장기화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이 때부터 동부권 6개 경찰서를 비롯, 매일 2000~2300명의

병력을 쏟아부어 산장, 별장, 숙박업소, 항·포구 등 은신 가능성이 높은 4752개소를 선정, 검문 검색·수색·점검에 나섰다. 연 인원으로 보면 투입 인원만 5만5000명이 넘는다.

지방청 위주로 꾸려졌던 검거전담팀을 최근에는 경찰서별로도 꾸렸다. 하지만 구체적 정황 없이 막연한 수색에 치중하다보니 성과를 올리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사 기법이나 지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토록 자랑했던 첨단 수사 기법을 고려하면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반상회까지 열었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인권 침해 논란, 부실한 정보로 추측만=유씨 도주가 장기화되면서 경찰 등 수사 당국 안팎에서는 순천 도주 뒤 지리산 잠적설, 밀항 가능성에 이어 유 전 회장이 순천 도주 뒤 밀항, 해외로 도망갔다는 밀항 성공설까지 나돌고 있는 형편이다.

수사 당국은 그나마 난무하는 추측을 명쾌히 잠재우지도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검·경간 정보 교류가 안되면서 수사가 겹겹이 걸렸다는 지적이 제기된 뒤에는 아예 '수사 기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토록 자랑했던 첨단 수사 기법을 고려하면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도 비등하고 있다.

개인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순천 청소골 계곡 주변 마을을 한 때 전국에서 몰려든 검·경과 '사냥꾼'들로 인해 주민들이 사실상 이들의 감시 속에 살아가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며칠 사이 수 차례에 걸쳐 가택 수색을 당하는 등 '도끼몰이'식 수색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유 전 회장의 아내 권운자(72)씨를 경기도 분당의 한 오피스텔 부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권씨가 휴대전화를 끄고 주거지에서 사라진 지 한 달여 만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색진해운 회장)의 부인 권운자(72)씨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시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50
달출몰 02:15 달몰 16:02

‘오후에 소나기’

번덕번덕 날씨 탓에 초여름 감기 조심해야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비	19/27	보성	구름많음	18/25
목포	구름많음	18/25	순천	구름많음	19/25
여수	구름많음	19/23	영광	구름많음	18/26
나주	비	18/27	진도	구름많음	18/25
완도	구름많음	18/26	전주	비	19/27
구례	비	18/26	군산	구름많음	18/25
강진	구름많음	19/27	남원	비	19/26
해남	구름많음	19/26	속산도	구름많음	18/23
장성	비	18/26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안바다	서~북서	0.5	서~북서	0.5
	면바다	북~북동	1.0~1.5	서~북서	1.0~1.5

◇생활지수

식중독	65
운동	10
빨래	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간	높이	시간	높이
여수	10:49	10:49	04:05	04:05
	23:46	23:46	19:24	19:24
여수	06:01	06:01	12:07	12:07
	18:47	18:47	00:00	00:00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18/28	20/29	21/28	21/29	21/30	21/30	22/30

밤샘 경기 관람, 출근해선 '구벽구벽'... 졸음 운전도

직장인들 월드컵 후유증 호소

직장생활 6년차 이지훈(35·광주시 남구 진원동)씨는 요즘 월드컵 경기 TV 시청에 따른 수면 부족으로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12시간 시차로 인해 새벽까지 경기를 시청하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회사에 출근해서 졸음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심지어 출근길 졸음 운전을 하기도 한다. 지난 17일 새벽 1시 세계적인 축구스타 밀러와 호남두가 출전하는 빅매치,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시청한 후 잠을 이룰 수 없어 그 날 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냈다.

이씨는 "전남지역으로 출장이 많아 운전 중 피로회복제와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했다"며 "축구가 끝나면 새벽 4~5시가 훌쩍 넘어 잠을 더 잘 수 없어, 출근 후 피로와 무력감으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에 들어간 신태호(20·호남대 스포츠레저학과 1년)씨는 월드컵 경기 시간에 맞춰 아예 '올빼미' 생활에 들어갔다. 축구경기가 펼쳐지는 늦은 새벽까지 중계를 챙겨보고, 아침이 밝아오면 잠자리에 든다. 신씨는 "워낙 축구를 좋아해 주요 경기들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요즘 아침 해가 새벽 5시면

떠올라 잠을 자려고 누우면 주변이 밝아져 잠들기도 힘들고 하루종일 비몽사몽 상태에서 지낸다"고 밝혔다.

이처럼 밤샘 월드컵 응원으로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출근길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남야구 월드컵기간인 2010년 6월11일~2010년 7월12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분석결과 5년평균 대비 사고사망자가 14%(35명/30.6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드컵 밤샘 시청으로 인한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도로공사는 이에따라 올 월드컵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예방 특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운전을 하고, 졸릴 때는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어가라고 당부한다. 내과 전문의들은 "새벽 경기 시청을 포기할 수 없다면 경기 직전에 미리 수면을 취하는 등 요령있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전교조, 전임자 복귀 거부...총력투쟁키로

광주지부장 단식농성

27일 조퇴 투쟁 강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요구한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부장 단식농성을 비롯해 다음 주 조퇴 투쟁, 시국 선언, 전국교사대회를 추진하는 등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해 교육부와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전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위원장과 16개 시·도 지부장, 중앙집행위원 등은 복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대규모 해직 사태가 우려된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김용태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법외노조 판

결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조퇴 투쟁을 진행한다. 조퇴 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은 오전 수업 후 조퇴해 서울역 규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4시30분에는 광주에서도 동시 규탄대회를 열 방침이다. 전교조가 조퇴투쟁을 공개적으로 결의한 것은 2006년 이후 8년 만이다. 또 다음달 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고, 12일에는 교사 1만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법외 노조화에 맞서는 총력투쟁 이외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 1000만

서명운동을 확대하고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한편 28일에는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도 조직하기로 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 운동,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 운동을 벌이고 학교혁신운동을 확대하는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용태 광주지부장은 "학교 복귀명령 거부와 조퇴 투쟁은 전교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위한 항거 투쟁"이라며 "법외 노조화 반대는 물론 세월호 진상 규명과 역사 바로세우기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정
BNC빌딩
수협
동행문선지점
상무역

지멘스 상무점
약명빌딩5층 501호
동행문선지점
아바폴드지점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약기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